

12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경기북부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강촌공원5분걸음에뿐작은도서관/전성희	데미안/헤르만 헤세 글, 배수아 옮김/그 책/	내 안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길을 따라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것이 왜 그토록 힘들었던가?
2	자유청소년도서관/김경윤	질문 빈곤 사회/강남순/행성B	"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열정적으로 궁금해할 뿐이다."-아인슈타인
3	온가족비전도서관/양수정	하늘에 속한 사람/폴 해터웨이 글/ 홍성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4	화전작은도서관/임희정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김초엽/허블	처음으로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갈게 위에 몸을 뉘었을 때 희진은 문득 울고 싶었다. 고작 그 정도의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을 예전에는 몰랐다. 느낌: 아들에게 잘자라고 말하며 이 글이 떠올랐다. 가슴이 시리다. 왜 그동안 더 많이 얘기하지 못했을까 잘자 사랑해라고..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더 표현해야겠다. sf소설로 분류되지만 내겐 sf로 느껴지지않았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 소설이었다.
5	에다움도서관/백정희	시선으로부터./정세랑/문학동네	명혜는 명은더러 다른 모두가 더하기의 인생을 살때 혼자 빼기의 인생을 산다며 감탄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했었다. 명은은 자신이 택한 빼기의 인생이 싫지 않았다. 나의 한줄: 빼기의 인생은 생각해보기 못했다. 더하기만을 위해 살고 있는건 아닌지 덜어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6	와이시티작은도서관/김경진	길을 잃어 여행 갑니다 /김비, 박조건형 /김영사	여행하는 시간 자체가 온통 선물이구나. 파리는 우리 두 사람을 설레게 하고, 놀라게 하고, 사랑에 빠지게 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어떤 궁지로부터 도망쳐 왔든 상관없었다. 나의 한줄: 10여년 전 혼자서 일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여행을 마친 후, 정말 돌맹이도 씹어먹을 수 있을거 같은 용기와 활력소가 샘솟았었다. 너무 늦지 않게, 혼자만의 배낭여행을 떠나고 싶다.
7	그루터기 작은도서관/이병무	어린이라는 세계/김소영/사계절	사회가, 국가가 부당한 말을 할 때 우리는 반대말을 찾으면 안 된다. 옳은 말을 찾아야 한다. ... 우리가 어린이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린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약자에게 안전한 세상은 결국 모두에게 안전한 세상이다.
8	평화를 품은집 평화도서관/황수경	우호적인 무관심/최윤정 지음/	지도없이 어딘가에 도착하고 터나기를 반복하는 모든이들에게 나는 내 생각과 행동의 기준은 타인의 시선이나 바깥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들어나가겠다는 욕망으로 젊음을 보냈다 더 이상 젊지않은 지금, 내안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리고 나와세상 아이의 균열도 함께본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좌표에서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고민하던 젊은 날과는 달리 인생은 다만 흘러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다. 수정 나와 세상 아이의 가 아니라 사이의 로
9	모당공원작은도서관/김정희	그림책이라는 산/고정순/만만한책방	쉽게 망친 세상을 어렵게 되찾고 싶은 사람이 하루 한 명씩 늘어나길. 그림에 바람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

12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광주지부

도서관명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책돌이도서관/신화숙	내마음 사사ㅎ/김지영그림책/사계절	시시해 ㄱㄱㅎ한번 돌리면ㄴㄴㅎ사사ㅎ더하면ㅅㅅㅎ내마음 들여다보며 재미있게 즐기는 말놀이 따라쓰기 하다보면 속상한 마음이 어느새 사사ㅎ""거칠고 딱딱하게 말하고 말았어. 사사ㅎ(속상해)이제 말하지 말까? 사사ㅎ(소심해)말하는 방법을 바꿔보자ㅅㅅㅎㄱ(싹싹하게)"
2	아이숲어린이도서관/문상희	파친코/ 이민진/ 문학사상	미국 이민 1.5세대의 작가가 주목해보는 재일 일본인의 삶. 이방인의 아픔을 알 수 있게 한 책이다.
3	책문화공간 봄/위명화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 캐서린 메이/ 웅진지식하우스	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우리모두에게~ 겨울을 잘 보내고 기다리는 봄은 꼭 올거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과 삶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모든이들에게 선물같은 책입니다

12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대구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개인회원/손수정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 찰리맥커시/ 상상의 힘	이책은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에 현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쓸데없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물음에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이라고 한다. 남과 비교하면서 살기보단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오늘의 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려한다. 이책은 두고두고 언제든 펼쳐보아도 좋은 책이다. 혼자라도 좋고, 함께라면 더 좋다.
2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더 불어숲	<마음이 아플까봐> 올리버 제퍼스 글 그림; 이승숙 옮김/ 아름다운 사람들	소녀는 두려워진 마음을 잠깐만 빈 병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아플까봐..... 그런 소녀의 모습을 나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 속에 든 마음을 꺼내지 못하는 소녀의 모습 속에도 내가 있네요. 마음을 꺼낸다는 건 어른이 된 지금도 쉽지가 않네요.
3	해봄도서관	토지/박경리/지식산업사	애국자라 했을 때 한복의 얼굴에는 수줍음이 지나갔다. 그리고 술 안 마시고는 못할 말들이었다. [그리고 그래야만 나는 빛을 갠는 기이 안 되겠습니까? ? 빛 안지고 살겠다 그기이 지 평생의 소원인께요. 관수형님이 처음 지 보고만주가라 했을직에는 원망스럽기도 했제요. 하지마는 만주 가서 길상 형 님을 만나보고 그곳 사정을 보이, 야 길상 형님이 나를 깨우쳐준 기라요. 나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라 벗어라 그것은 니 잘못이 아니다"..... 남이사 머 라 카든지 서러버도 억울해도 이자 나는 기대고며 바칠 기동 하나를 잡은 기라요. 사람답게 살자..... 나는 발 못 뺏니다. 나도 이강산에 태어나서 소리 칠 권리(권리)가 있인께요. 형님 이 훌륭하고 그 발밑에도 못 가는 거는 지도 압니다. 하지마는 형님 ! 형님 은 지 앞에서는 울면 안됩니다. 형님 우는 거를 보이 조금은 같잖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요, 지 말이 틀렸십니까 ?] [야, 한복아 그기이 정말로 니 말가? 니가 정말로 그런 말을 했나? 못 밧겠네?] [와요 거북이 동생이라고요?]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니야말로 젤 깨끗한 애국자다!] *20대에 밤새워 읽었던 토지의 한부분 아버지 김 평산과 형거북이의 악행을 두어깨에 짊어진채 평생을 마을에서 큰소리 안나게 살아가던중 만주에 독립운동하는데 한몫을 하는기회를 맞이하며 숨통 틔우는소리
4	책마실도서관	말하는몸 /박선영,유지영 저 문학동네 2021년	다양한 삶의 이력을 지닌 여성 88인의 몸 이야기와 이를 기록한 두 여성 제작자의 에세이입니다. 인터뷰 참여한 여성들은 몸에 대한 최초의 기억부터 자신의 몸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느낀 순간, 월경이나 임신, 투병, 운동 등 몸의 변화가 일어난 순간, 타인에게 몸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던 순간 등 몸을 구성구석 회고하며 자신의 언어로 몸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5	개인회원/김경희	숲속의자본주의자/박혜윤/다산초당/ 반야월행복한어린이도서관 아띠	나답게 사는 삶에 대한 통찰과 자본주의의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한 용감한 시도가 신선했다. 삶에는 정답이 없다.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에게 질문을 주는 책이었다. "내 삶은 내것이다."
6	반야월행복한어린이도서관 아띠	담을 넘은 아이/김정민 글, 이영환 그림/ 비룡소	이제는 더 이상 편 가르지 않기를, 차별 받지 않기를, 고통 받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썼습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해 성별, 신분, 나이를 떠나 마음을 합 쳤던 푸실이와 효진, 선비처럼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마음 모아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7	그나라어린이도서관	남자아이여자아이/ 조아나 에스트렐라 /그 림책공작소	"우리는 사람들 얼굴을 볼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어."

12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임어?

사무국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백영숙 파리의 도서관 1,2 / 자넷 스캐슬린 찰스 우진하 옮김 / 하빌리스	<p>“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는 건 오직 책뿐입니다. 파리 미국 도서관은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는 책으로 만든 다리입니다.” (p.209)</p> <p>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로 제2차 세계 대전 중에서도 도서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사람, 도서관, 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의 연대와 중요한 것,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힘에 대해 생각해 본 책임입니다.</p> <p>특히 협회는 연대의 힘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고, 하고 있는 일들도 도움 없이는 힘든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전쟁과 같은 상황인 요즘 작은도서관과 책을 지키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p>	
2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은주 별것 아닌 선의/이소영/여크로스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이슬아, 남궁인/문학동네 시선으로부터,/정세랑/문학동네	<p>2021년이 어느새 훌쩍 가고 있다. 그 어느 해보다 정신없이 부지런히 살아왔다. 일, 공부, 개인사 뭐하나 만만한 일은 없었다. 그 와중에 제일 힘들었던 일은 나자신을 마주하고 돌보는 일이었다.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와 의 첫 시작이고, 그 시작을 응원하고 밀어붙이고 가야하는 것은 나왔다. '그래도 된다고. 그러라고.'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말이 큰 힘이 되는 한 해였다. 손가락 두 개로 내 등을 조용히 밀어주던 수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던 한 해. 그런 2021년에도 나는 조용히 내 속도에 맞춰서 책을 읽었다. '별것 아닌 선의'(이소영, 여크로스 2021),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 (이슬아, 남궁인, 문학동네 2021), '시선으로부터'(정세랑, 문학동네 2020)를 읽을 때, 특히 좋았다. '별것 아닌 선의' 안에서 위안을,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에서는 인정의 미학을, '시선으로부터'에서는 누구나 그렇다.라는 것들을 배우고 깨달았고, 그 과정에서 나는 위안받고, 나를 다독이게 됐다. 2021년을 다시 돌아본다. 2022년을 맞이할 때 조금은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다행이다.</p>	
3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김현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우중영/메이븐	<p>나는 올해도 여전히 씨앗을 심고 가꾸고 관찰하고 거뭇들었다. 그 열매와 쪽정리로 놀거리를 만들어 아이들과 놀았다. 아이들과 만나서 활동하는 것은 한 시간 정도면 되지만, 활동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내야하고 육체적인 노동이 들어가는 일이라 힘든 때도 있었다.</p> <p>손톱만한 작두콩이 초록 새싹을 내밀더니 덩굴을 뿜어 도서관 한쪽 벽에 그늘을 만들어 위로위로 3m쯤 쪽쪽 자랐다. 도서관에 드나드는 사람들마다 '저게 뭐야?'하며 신기해 하면 작두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식물들의 특성을 알고 자라는 과정을 얘기해주고 같이 관찰하고 이야기 하다보면 힘들었던 것은 사라지고 '또 뭘 할까?' 하고 궁리하게 된다.</p> <p>식물이 자라는 과정은 아이가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과도 닮았다. 그리고 그 식물에 내가 들어있기도 하다. 울조에 읽었던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우중영/메이븐>는 내가 식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문득문득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다.</p>	
4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김혜령 다가오는 말들/은유/여크로스 쇼코의 미소/최은영/문학동네	<p>문학을 주로 읽는 나에게 신선하게 다가온 에세이. 「다가오는 말들」은 2019년에 선물을 받은 책이다. 선물을 받고 얼마 후, 작가와의 만남의 자리에서 은유 작가님을 처음 만나 뵈게 되었다. 한번도 글 쓰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작가님의 말을 들으며 '아, 나도 나만의 언어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 보았다. 그 처음 느껴본 감정은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2021년이 되었다. '2021 작은도서관 학교' 다시, 또 시작에 강사님으로 은유 작가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강의를 들으며 잊고 있던 '나만의 언어'를 가져보고 싶다는 감정이 다시금 떠올랐다. 오랜만에 책장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다가오는 말들」을 다시 꺼내 들어 읽고 있다. 지금 느껴지는 이 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질지는 사실 자신이 없다. 하지만 적은 분량이라도 조금씩 여러번 계속 읽다 보면 어느새 글을 쓰는 나를 발견하게 될지도?</p>	
5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박현진 진짜 게으른 사람이 쓴 게으름 탈출법/ 지이/마인드빌딩	<p>누군가에게 새해 다짐을 물어본다면 다이어트, 돈 모이기 등을 대답할 것이다. 나의 대답은 간단하다. 바로 '게으름 탈출'이다. 나는 태생이 낙천적이고 게으르다. 게으름은 나를 달콤한 휴식에 젖게도 하지만, 발등에 불뿔을 튀겨 온몸을 긴장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보통 게으름은 내 눈앞의 휴식만 보기에 해서, 당장의 해야 할 일을 몰두하지 못하게하고 나를 미루기의 수렁으로 밀어넣는다. 이제는 게으름이 주는 달콤함에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한다. 내 할 일을 작게, 더 쉽게, 작게 쪼개어 비로소 한 가지를 해냈을 때의 성취감을 더 크게 느끼려고 한다. 그 성취감을 원동력 삼아 미루지 않고 내 일을 해내려 한다. 그리고 혹여나 할 일을 미루고 또 다시 게으름에 빠졌을 때, 나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고 이런 게으른 모습조차 '나'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다.</p> <p>2022년을 앞두고, 나를 괴롭게하고 나타하게하는 게으름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골랐다. 새해엔 조금 덜 게으른 내가 되길 소망해본다.</p>	
6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에서 명량한 은둔자/캐럴라인 냅/바다출판사	<p>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이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연말정산 시간을 갖습니다. 정해진 틀은 딱히 없고, 매년 초 세운 그 해의 키워드와 1년 동안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다양한 저의 언어로 정리합니다. 그 과정을 겪고 보니 애정하는 다른 책들보다는 다시 읽고 싶은 책으로 <명량한 은둔자>를 골랐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뇌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파하고 회복하며 조금씩 자기 자신으로 성장합니다. 인생의 당사자인 우리는 매년 아프고 지치고 있지만(사투리입니다), 조금 멀어져서 보면 저자처럼 조금씩 성장하고 있을 겁니다. 올 한해 정말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당신답게 살아가길 응원합니다.</p>	
7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채은아 달리구트 꿈 백화점/이미에/뿅토리나인	<p>“잠은 시간은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희망에 미하린 보잘것없고 들모없는 시간 같지만, 죽 자고 일어났을 때 현재를 살아갈 용기와 기억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귀중한 경험을 걸부리고, 희망으로 더 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휴식처이다.”</p> <p>꿈 백화점의 달리구트는 “과거에만 머문다면 안타까움과 슬픔에 빠지기 쉽고 미래만 보고 살아가기에는 현재를 소홀히 쉬우니 오늘날 현재를 살며 어제에서는 추억과 깨달음을 가지고 내일의 꿈을 꾸어라”고 말합니다. 책의 한 구절을 읽으며 여제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p> <p>2021 작은도서관 책친구 최종공동연수회에서 조미자 작가님이 해주신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다음 발걸음을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꼭 안고 위로하는 시간, 침차게 물장구치며 나아가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p> <p>「달리구트 꿈 백화점」에서 '꿈'은 '숨'가쁘게 이어지는 직선 같은 삶의 심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한 힘이 있어야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발돋움 할 힘이 생긴다고요. 2021년을 달려오면서 했던 일들이 만족스럽지 않아 후회로 시간을 보내거나 막막한 내일 걱정에 잠을 못 이룬 적이 많았습니다. '꿈'을 누리지 못했지요.</p> <p>앞으론 나에게 '힘'을 비추하 '숨'을 충분히 가져나 보려고. 특특이 무언아게습니다. 이젠르 주어로 쫓고 내일로 나아가는 힘 더 나은 오늘은 자기 위해서</p>	

12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서울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박순선	오만과 편견/제인 오스틴/문학동네	제인 오스틴의 다른 작품들과 영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읽어도 재미있고 생각해볼 내용이 많아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읽어보고 깊은 토론으로 이어가고 싶은 책입니다.
2	흥부네그림책도서관/김진희	더우면 벗으면 되지/ 요시타케 신스케/ 주니어김영사	부담스런 일을 해야 할 때, 지친 마음이 들 때 이 작은 그림책을 후르륵 넘겨 읽으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럼 다시 해 볼까!'하는 마음이 뒤따라 온다.
3	작은도서관 함께크는우리/장인혜	11월/신시아 라일런트/질 캐스트너/이상희/문학과지성사	쉴쉴하고 외롭고 힘들기만한 가을에 겨울을 준비하는 11월이 주는 따뜻한 매력을 알게 해주는 신시아 라일런트의 시같은 그림책을 만나보세요.
4	용강동작은도서관/손선미	숨 / 테드 창 / 엘리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설령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어도, 스스로 내리는 선택에 의미가 있는 듯이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이 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이며, 이 거짓말을 믿는 것이야말로 깨어 있는 혼수상태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문명의 존속은 이제 자기기만에 달려 있다. 어쩌면 줄곧 그래 왔는지도 모른다.
5	작은도서관 웃는책/김자영	건지감자껍질파이북클럽/메리 앤 새퍼/이덴슬리벨	"그래서 제가 독서를 좋아하는거예요. 책 속의 작은 것 하나가 관심을 끌고, 그 작은 것이 다른 책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발견한 또 하나의 단편으로 다시 새로운 책을 찾는 거죠. 실로 기하급수적인 진행이랄까요. 여기엔 가시적인 한계도 없고, 순수한 즐거움 외에는 다른 목적도 없어요."
6	생글작은도서관/주영자	거꾸로 읽는세계사/유시민 / 돌베개	20대에 교양 필독서로 읽고 그후로 작가의 찐팬이되었는데(^^) 이책이 34년만에 전면개정되어 완전 새로운 책이 되었다. 20세기 세계사의 11가지 큰사건을 쉽고 재미있게 쓴책. 읽는 과정속에서 통찰과 삶의 기쁨을 주는 책이다.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7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차계영	제암리를 아십니까 /장경선 / 푸른책들	겉으로만 알던 역사 속의 이야기를 등장인물들의 이야기속으로 빠지며 역사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은 바꾸어 놓은 책이라 아이들이 좀 더 크면 다같이 읽고 아이들과 나눔을 해보고 싶은 책입니다.
8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 크/박형섭	난민 말고 친구/최은영/마주별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들여야 할까? 그들은 우리의 친구인가, 아니면 단지 조국을 떠난 임시 난민인가? 전쟁을 피해 시리아를 떠난 사라와 세 친구간의 우정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인류 보편의 사랑을 일깨워준다.

12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울산경주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아름드리작은도서관)/김정숙	불편한 편지점/김호연/나무옆의자	21년 출간된 책중 맘 편히 후딱 읽은 책인것 같습니다.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행복은 멀리있지 않고 내 옆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 (p.252)
2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책누리작은도서관)/박지혜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김수현/놀	아무리 좋은 사람이되려 애써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3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다울림작은도서관)/최영순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박상미/웅진지식하우스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 듯하라. 다가 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정도로.
4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햇살작은도서관)/이윤진	심판/베르나르 베르베르/열린책들	어떤 일이 어려워져 하지말아야 하는게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인생도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스스로 선택한 삶이라면 살아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어요.
5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극동푸른작은도서관)/박은영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박노자/꾸리에	흐르는 시냇물을 나그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시냇물이 없어지지 않고 나의 촛불에 타오른 불씨를 이웃의 촛불에 나누어 준다고 촛불의 불빛이 덜 빛나는 것은 아니다.
6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책마루작은도서관)/이승민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이꽃잎/문학동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그저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라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다. 하지만 그토록 간단한 것이 인생의 비밀이다.
7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소은미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은유/서해문집	육아의 보람과 기쁨을 위안으로 삼기엔 그것과 맞바꿀 대가가 너무 크고 길다. 그 사실은 경험하기 전에는 모른다.
8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하현숙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사계절	꿈이 있다는 것. 이를수 없는 꿈이라 비웃지만 나를 살게하고 숨 쉬게하는 꿈 앞씩... 그 아름다운 이름
9	더불어숲작은도서관/이귀연	명량한 은둔자/캐럴라인 뉘/바다출판사	우리가 그저 사랑받기만을-한없이 사랑받기만을-원하다는 건 사실 내적으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혼자서도 충분히 귀한 존재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 느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아마 지나치게 많은 양을-얻어야 하는 상태라는 것을 뜻할 때가 많다. (p.80)
10	더불어숲작은도서관/열매	정원의 쓸모/수 스텐트 스미스/윙북	내가 정원 일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새벽에 이슬 덮인 풀밭을 맨발로 걷는 것이다. 꽃과 생울타리들이 밤새 자라 있고 어떻게 해서인지 첫 빛이 비치면, 정원은 내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공간처럼 느껴진다.
11	더불어숲작은도서관/김영선	수화 배우는 만화/핑크북어/돌베게	결국은 모두 '대화'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농인과 청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시혜나 조력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충청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김은정	우정그림책/하이케 팔리/사계절	<p>[100 인생 그림책] 작년에 서점에서 제목을 보는 순간, 첫장을 열게 되었고 단숨에 읽어버린 책, 미련없이 구입한 책, 0세에서 100세까지 100장면으로 보는 소장하고 싶은 작가의 책이었다</p> <p>올해 초 차기작으로 [우정 그림책]을 서점에서 보았을때 또 한 번 책장을 넘기게 한 책이다</p> <p>"모든 우정은 잠시 지나가듯 평생 이어지듯 애정으로 변하듯 불신으로 끝나듯 구할 가치가 있다"</p> <p>인간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통계가 있다.</p> <p>오늘도 난 남자든 여자든 자녀든 아이들이든 성인이든 남녀노소 관계 없이 도서관에서 사람을 만나며, 책을 통해 우정을 쌓아가다</p>
2	범지기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윤나영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신시아라일런트 글/캐드린 브라운그림/보물창고	<p>언제나 다시 꺼내보고 싶은 그림책 1위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알아가는게 쉽지 않은 것을 느낀다. 마음을 나누는데 용기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상처받은 것이 두려워... 혼자 남는 것이 두려워... 더욱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한다. 이럴때마다 꺼내 읽어본다. 할머니가 용기된 이유에 대해, 그래서 다시 내가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되는 책이다.</p>